SEOUL ECONOMIC MONITORING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1. Aug

09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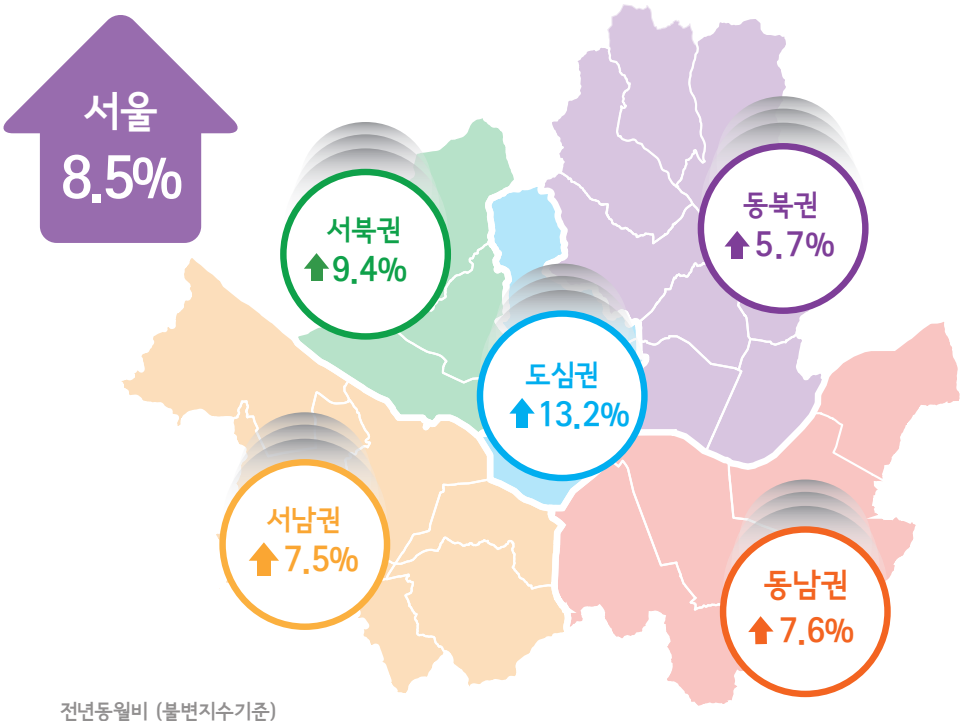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1. 9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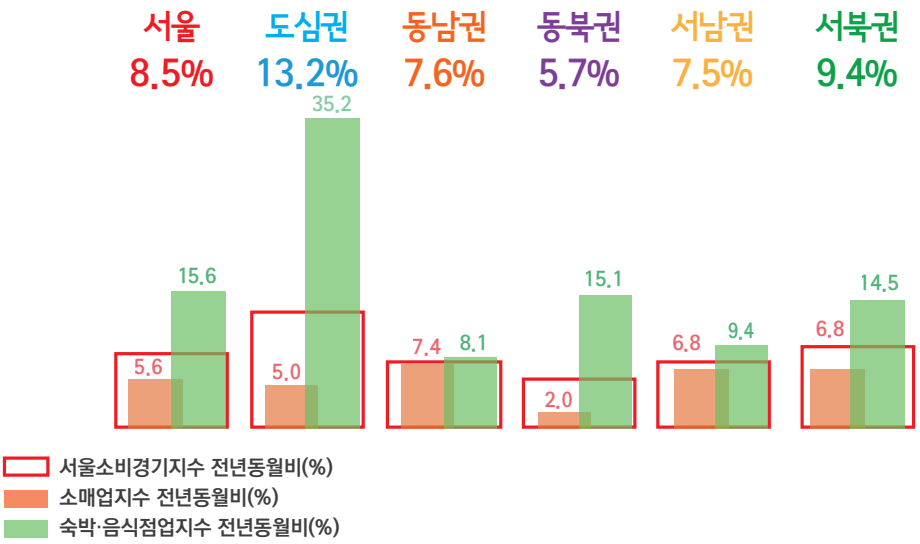
21년 09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5% 상승

(불변지수)

서울 전 권역에서 숙박·음식점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소비경기가 5개월 만에 증가로 반전



전년동월비 (불변지수기준)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 · 조정 · 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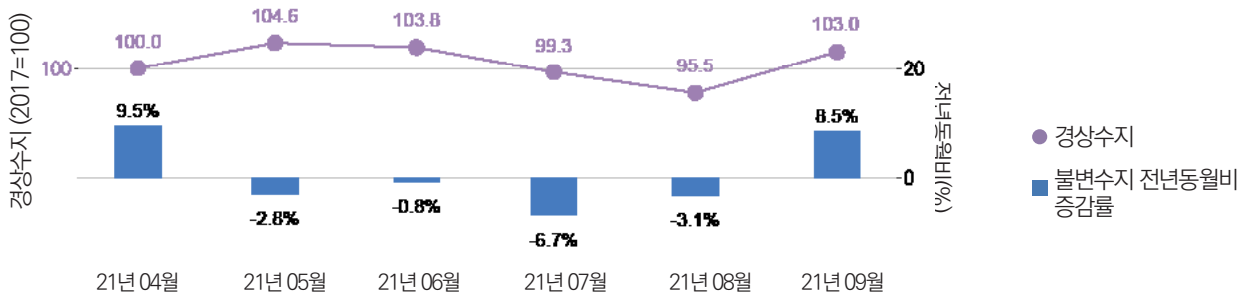
요약

서울 8.5% (103.0) 	• 2021년 9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103.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상승. 지난 5개월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서울 소비경기지수가 9월들어 상승으로 반등.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15.4% ⇨ 15.6%). 소매업 오름폭도 (전월보다) 확대(3.3% ⇨ 5.6%) - 9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폭락했던 2020년 9월(-10.3%)의 기저효과와 9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에 기인 - 그러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3.6% 하락면서 회복 수준에는 못미쳐 - 특히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기타상품 등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 대부분은 2020년 9월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던 업종(단, 무점포소매의 지속적인 상승은 예외)
권역종합	• 9월 서울은 숙박·음식점업의 대폭 상승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권역별 소비경기지수가 (전월보다) 상승. 서울 권역 중에는 서북권의 상승폭이 (전월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 도심권 :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월에 이어 상승 지속. 8월에는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이번 달에도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동북권 : 감소하던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증가로 반전하면서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특히 숙박·음식점업 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 - 동남권, 서남권 : 감소를 나타냈던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증가로 전환되고, 소매업 오름폭도 증가하면서 전월 하락하던 각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도 증가로 전환 - 서북권: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하락을 나타냈던 서북권 소비경기지수가 증가로 전환
도심권 13.2% (111.2)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5.0% 상승에다 숙박·음식점업도 35.2%의 대폭 상승하면서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13.2%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 상승 • 도심권 소매업은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전월 하락했던 가전제품·정보통신도 상승으로 전환되는 등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 •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특히 다른 권역에 비해 음식점 오름폭이 크게 나타남
동남권 7.6% (99.4)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7.4% 및 숙박·음식점업도 8.1% 상승하면서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는 7.6% 상승.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음식점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의복·섬유·신발, 종합소매 등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기타상품, 문화·오락·여가 등은 매출 증가를 이어간 반면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등의 내림폭이 확대되면서 동남권 소매업은 전월 수준을 유지 • 동남권 숙박·음식점업도 상승으로 전환되었지만,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음식점은 소폭 하락
동북권 5.7% (100.0)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은 2.0% 상승에 그쳤지만, 숙박·음식점업이 15.1% 대폭 상승하면서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5.7% 상승 • 동북권은 전월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소매업이 하락했지만 9월 들어 상승으로 반전. 그러나 동북권 소매업은 서울 권역 중 상대적으로 저조, 특히 종합소매는 부진을 면치 못함
서남권 7.5% (104.4)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6.8% 및 숙박·음식점업도 9.4% 상승하면서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7.5% 상승 • 서남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종합소매 등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두 배로 확대 • 부진했던 서남권 숙박·음식점업도 세부 업종 모두 소비 증가를 나타내면서 활기를 나타냄
서북권 9.4% (91.7)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6.8% 및 숙박·음식점업도 14.5% 상승하면서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9.4% 상승 • 서북권 소매업은 세부 업종의 오름폭은 다소 확대되고, 내림폭은 줄어들면서 (전월보다) 상승 • 서북권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도 9월 들어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던 서북권 숙박·음식점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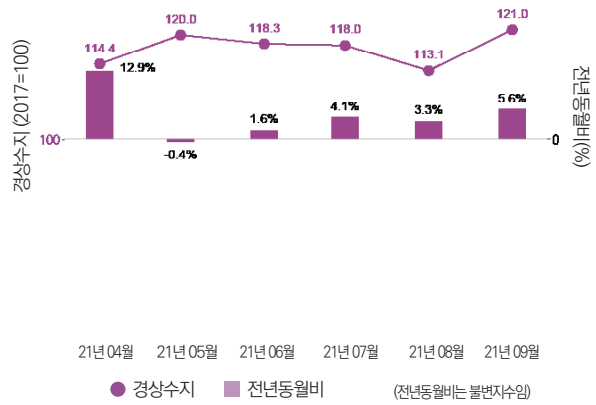
서울

- **9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5% 상승. 5개월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
  - 전년동월대비 +8.5% = 소매업의 기여도 +4.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4.5%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9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고르게 증가를 나타내면서 상승으로 전환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5.6%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15.6% 상승**
  - 9월 서울의 소매업은 세부 업종별로 (전월보다) 오름폭은 커지고 내림폭은 줄어들면서 상승세를 유지. 특히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던 의복·섬유·신발(8월, -6.2% ⇨ 9월, 18.1%)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으로 전환. 반면 소매업 세부 업종 중 2020년 9월 상승했던 연료(-27.2%), 기타가정용품(-18.2%), 가전제품·정보통신(-8.1%) 등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 9월 서울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 음식료품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서울의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세부 업종 모두 상승. 전월 하락했던 숙박(8월, -4.7% ⇨ 9월, 59.1%), 주점·커피전문점(8월, -12.4% ⇨ 9월, 49.0%), 음식점(8월, -18.0% ⇨ 9월, 3.2%)이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상승으로 반전(8월, -15.4% ⇨ 9월, 15.6%)
    · 9월 서울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점문점,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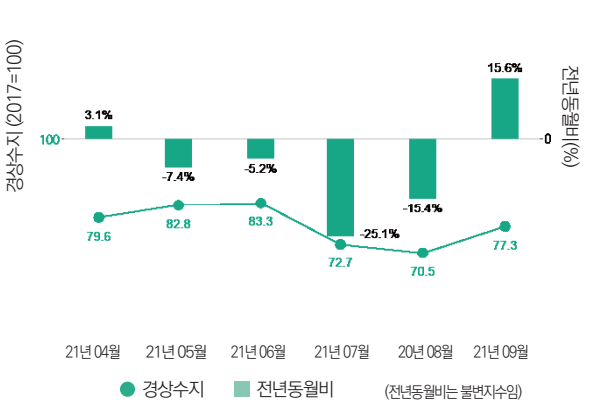
서울 소비경기지수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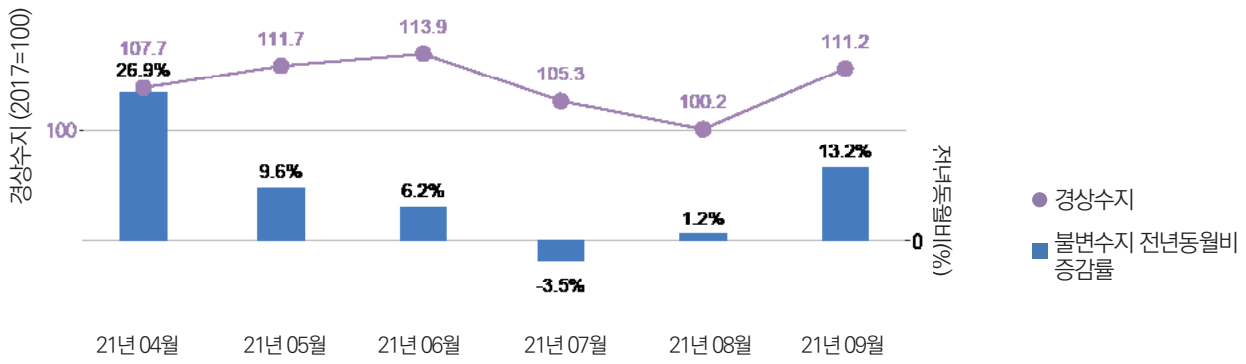


도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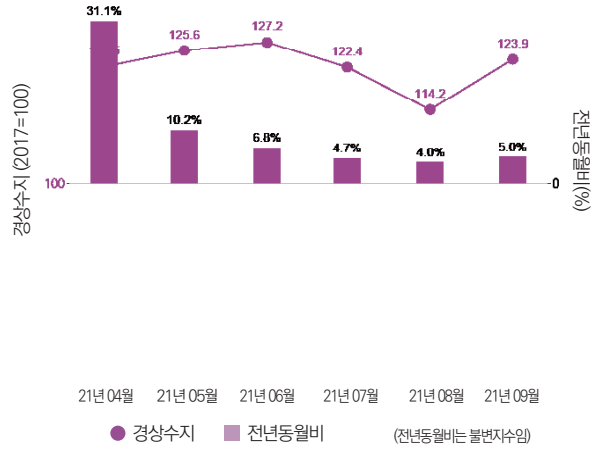
-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2% 상승. 숙박·음식점업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
  - 전년동월대비 +13.2% = 소매업의 기여도 +3.6%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9.5%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5.0%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35.2% 상승**
  - 도심권 소매업은 서울 권역 중유일하게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특히 다른 권역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종합소매도 2021년 2월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는 양호한 수준. 전월 하락했던 가전제품·정보통신(8월, -3.1% ⇨ 9월, 7.4%)도 상승으로 전환 되는 등 도심권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
  - 반면 연료(8월, -22.9% ⇨ 9월, -27.0%)는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기타가정용품(8월, 29.4% ⇨ 9월, -3.8%)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
    · 9월 도심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기타상품,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음식료품, 무점포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순으로 소비부진
  - 9월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를 나타냈으며, 특히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식점(11.5%) 오름폭이 크게 나타남
    · 9월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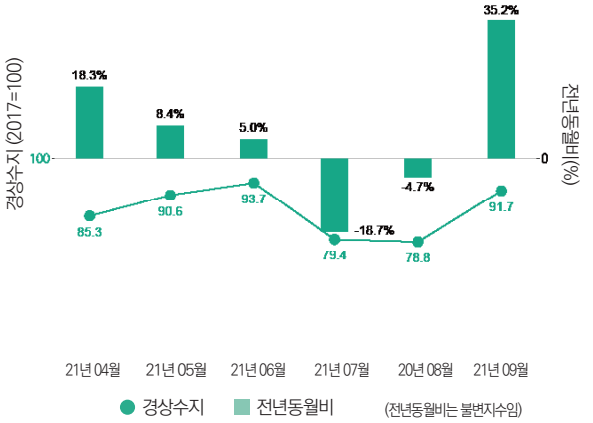
도심권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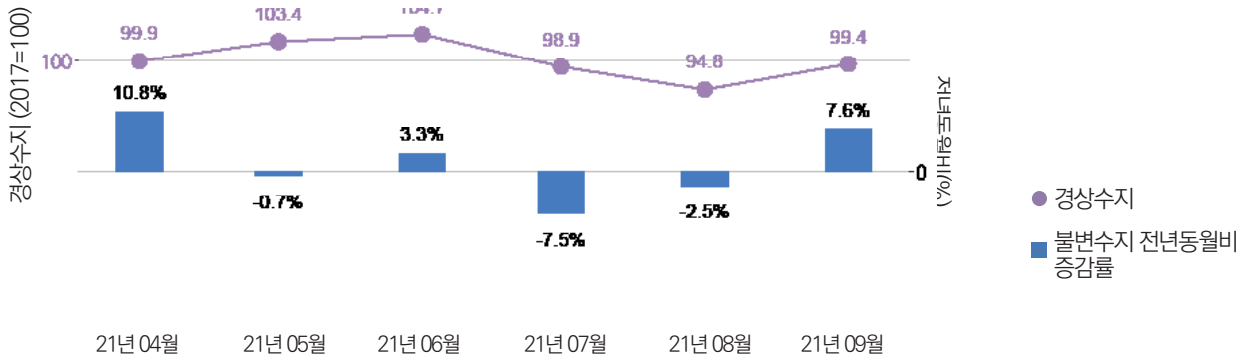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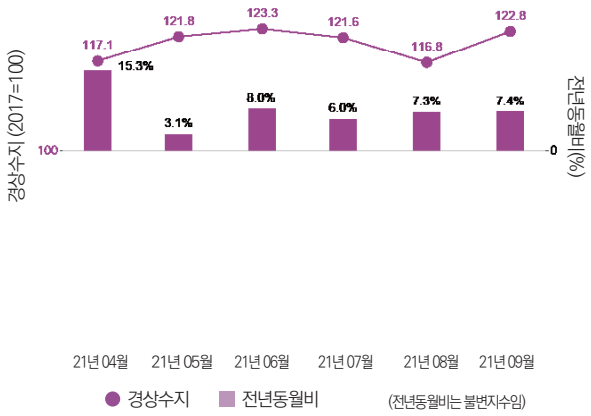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6% 상승.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음식점 매출 감소**
  - 전년동월대비 +7.6% = 소매업의 기여도 +5.2%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2.4%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4%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8.1% 상승**
  - 동남권은 의복·섬유·신발(8월, -4.8% ⇨ 9월, 15.6%), 종합소매(8월, -0.3% ⇨ 9월, 2.9%) 등이 감소에서 증가로 반등하고, 기타상품(18.0%), 문화·오락·여가(10.8%) 등은 매출이 증가세를 이어감. 반면 연료(8월, -29.7% ⇨ 9월, -32.1%), 가전제품·정보통신(8월, -5.5% ⇨ 9월, -11.3%), 기타가정용품(8월, -13.5% ⇨ 9월, -28.4%) 등은 (전월보다) 더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동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8월, 7.4% ⇨ 9월, 7.4%)
    · 9월 동남권 소매업은 기타상품,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순으로 소비부진
  - 동남권은 주점·커피전문점(51.2%)과 숙박(37.9%)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했던 숙박·음식점업(8월, -19.9% ⇨ 9월, 8.1%) 소비경기지수도 상승으로 전환. 그러나 동남권 음식점(-0.5%) 경기지수는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 9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반면 음식점은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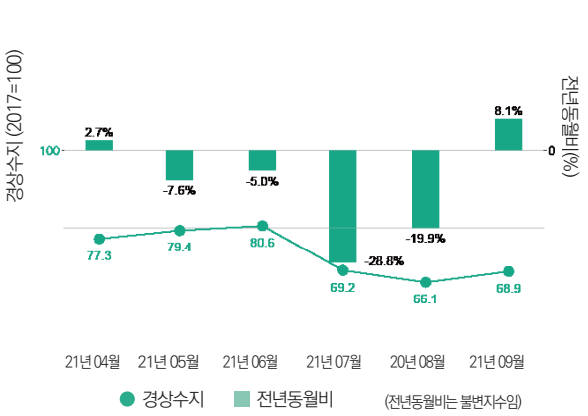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 |



| 동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동북권

•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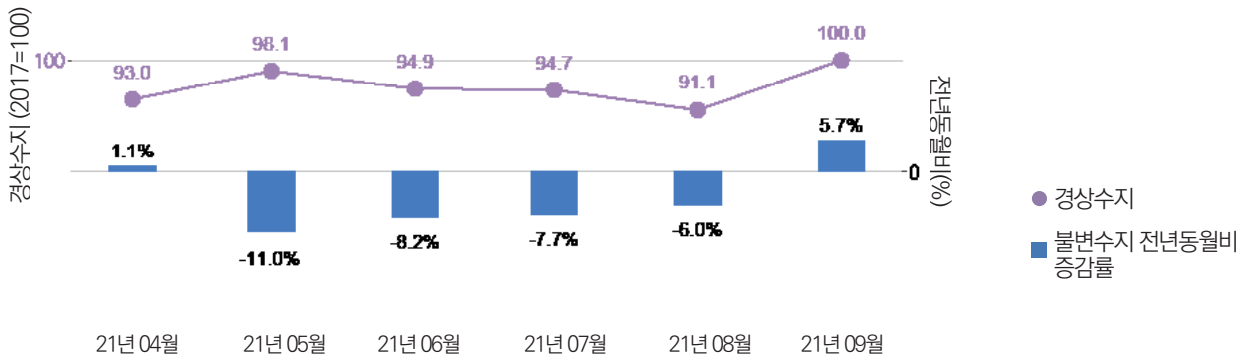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5.7% = 소매업의 기여도 +1.4%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4.3%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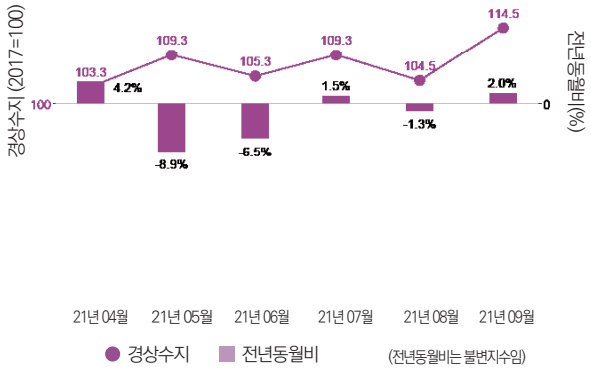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2.0%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15.1% 상승

- 전월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하락했던 동북권 소매업(8월, -1.2% ⇨ 9월, 2.0%)도 9월 들어 상승으로 반전. 의복·섬유·신발(8월, -8.7% ⇨ 9월, 19.2%), 문화·오락·여가(8월, -1.6% ⇨ 9월, 8.8%) 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하고, 기타상품(16.7%), 무점포소매(10.8%), 음식료품(9.9%) 등의 매출 상승세에 기인. 그러나 동북권 소매업은 서울 권역 중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특히 동북권 종합소매(-7.0%)는 2020년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함
  · 9월 동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문화·오락·여가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종합소매 순으로 소비부진
- 8월 부진을 나타냈던 동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8월, -6.1% ⇨ 9월, 74.9%), 숙박(8월, -5.8% ⇨ 9월, 30.2%), 음식점(8월, -18.4% ⇨ 9월, 4.2%) 등 세부 업종 모두 9월 들어 상승으로 반등.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동북권의 음식점 소비경기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 9월 동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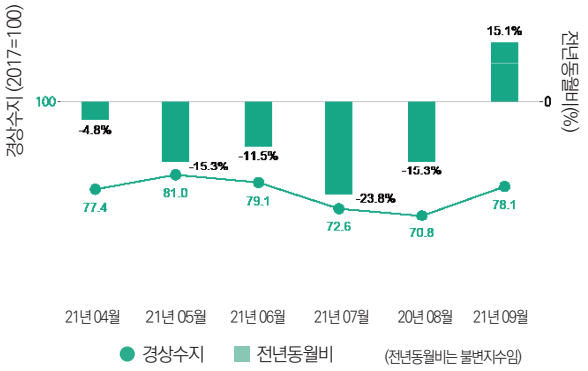
|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



|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동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서남권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5% 상승

- 전년동월대비 +7.5% = 소매업의 기여도 +5.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2.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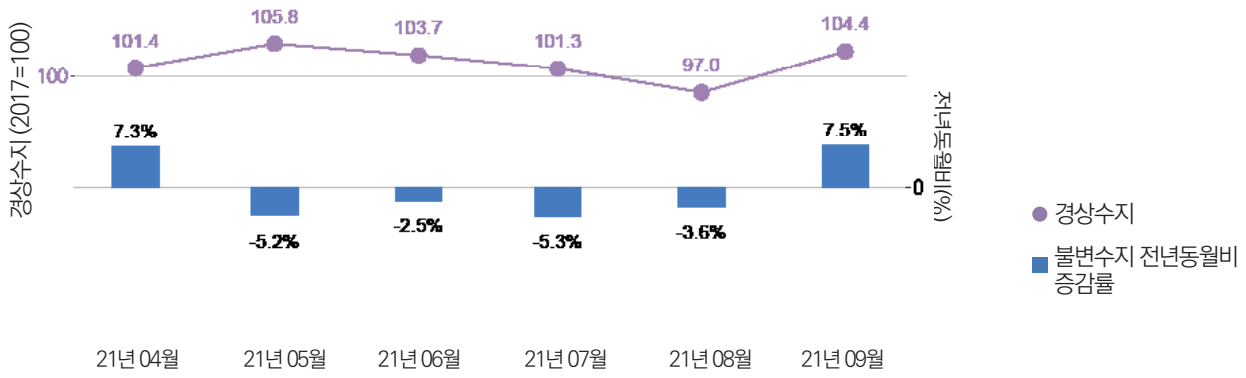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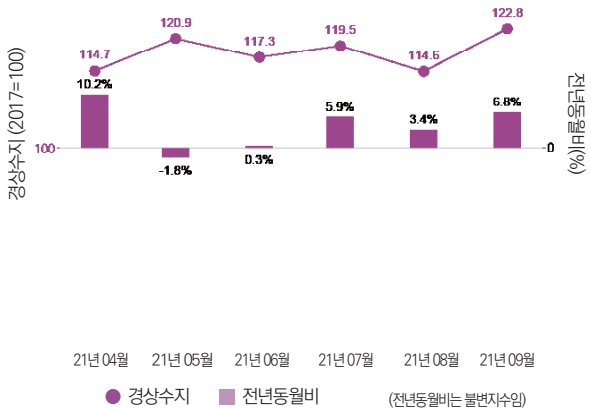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6.8%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9.4% 상승

- 서남권은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8월, -11.6% ⇨ 9월, 18.7%), 문화·오락·여가(8월, -5.7% ⇨ 9월, 1.2%), 종합소매(8월, -1.8% ⇨ 9월, 1.2%) 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등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하면서 오름폭도 (전월보다) 두 배로 확대(8월, 3.4% ⇨ 9월, 6.8%)
  - · 9월 서남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하락세를 나타냈던 서남권의 숙박·음식점업도 세부 업종이 모두 상승으로 전환. 주점·커피전문점(8월, -17.8% ⇨ 9월, 58.3%), 숙박(8월, -4.5% ⇨ 9월, 26.4%), 음식점(8월, -19.8% ⇨ 9월, 1.5%) 등이 상승을 나타내면서 부진했던 서남권의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도 다시 활기를 나타냄
  - · 9월 서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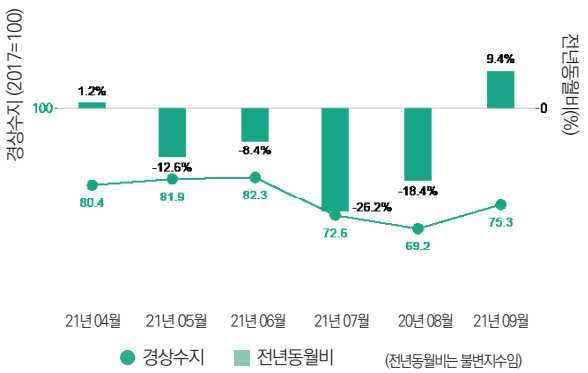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 |



| 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서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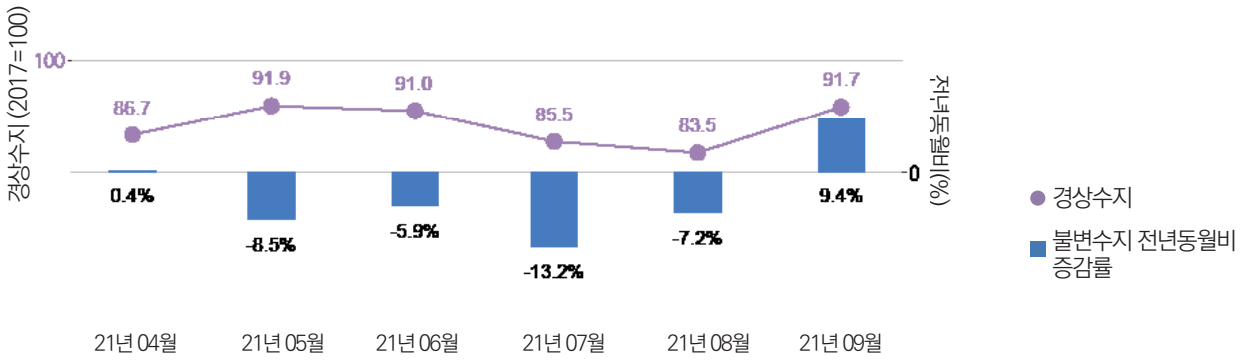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4% 상승

- 전년동월대비 +9.4% = 소매업의 기여도 +4.5%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4.8%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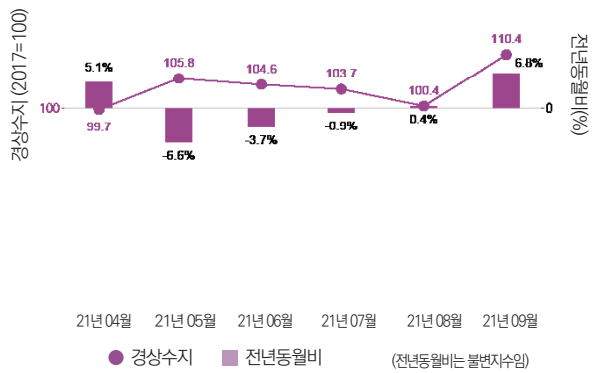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6.8%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14.5% 상승

-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8월, 0.5% ⇨ 9월, 6.8%)는 전반적으로 세부 업종별 오름폭은 다소 확대되고, 내림폭은 줄면서 (전월보다) 상승. 기타상품(8월, 5.9% ⇨ 9월, 17.1%), 문화·오락·여가(8월, 3.9% ⇨ 9월, 13.2%), 음식료품(8월, 2.4% ⇨ 9월, 10.4%)의 오름폭은 확대되고, 가정용품(8월, -23.6% ⇨ 9월, -9.8%), 종합소매(8월, -8.3% ⇨ 9월, -4.7%), 가전제품·전보통신(8월, -15.8% ⇨ 9월, -13.2%)의 내림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9월 서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 음식료품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종합소매 순으로 소비부진
- 그동안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던 서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상승. 주점·커피전문점(8월, -12.3% ⇨ 9월, 64.0%), 숙박(8월, -23.6% ⇨ 9월, 13.3%), 음식점(8월, -20.1% ⇨ 9월, 3.9%) 등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모두 상승으로 반등. 서북권 숙박·음식점업(8월, -18.6% ⇨ 9월, 14.5%)도 2020년들어 처음으로 상승으로 반등
  · 9월 서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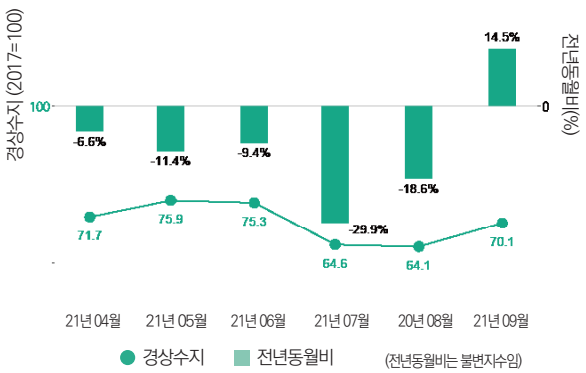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 |



|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서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통계표

년도	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2021년	04월	100.0	95.6	107.7	104.1	99.9	95.3	93.0	88.3	101.4	96.6	86.7	82.6
	05월	104.6	99.8	111.7	107.8	103.4	98.6	98.1	93.0	105.8	100.8	91.9	87.6
	06월	103.8	99.1	113.9	110.0	104.7	100.0	94.9	89.8	103.7	98.6	91.0	86.8
	07월	99.3	94.2	105.3	101.0	98.9	93.6	94.7	89.2	101.3	95.8	85.5	81.4
	08월(p)	95.5	89.9	100.2	95.1	94.8	89.1	91.1	85.3	97.0	91.2	83.5	79.0
	09월(p)	103.0	96.9	111.2	106.1	99.4	93.6	100.0	93.2	104.4	97.9	91.7	86.3

p : 잠정치

기여도

[단위 : %p]

구분	서울소비경기지수 (21.09월)	소매업 (21.09월)	종합소매	음식료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의류·섬유·신발	기타 가정용품	문화·오락·여가	연료	기타상품	무점포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21.09월)	숙박	음식점	주점·커피전문
서울	8.5	4.0	▽0.1	0.4	▽0.5	1.1	▽0.5	0.2	▽0.3	1.3	2.3	4.5	2.0	0.7	1.8
도심권	13.2	3.6	0.4	0.1	0.3	1.3	▽0.1	0.2	▽0.1	0.7	0.8	9.5	5.8	1.9	1.8
동남권	7.6	5.2	0.5	0.2	▽0.3	1.4	▽1.1	0.2	▽0.4	1.5	3.2	2.4	1.6	▽0.1	0.9
동북권	5.7	1.4	▽1.8	0.8	▽0.6	0.7	▽0.4	0.1	▽0.4	1.6	1.4	4.3	0.5	1.0	2.8
서남권	7.5	5.0	0.2	0.6	▽0.8	0.9	▽0.3	0.0	▽0.4	1.1	3.6	2.6	0.5	0.3	1.7
서북권	9.4	4.5	▽0.8	0.7	▽0.6	1.1	▽0.2	0.2	▽0.3	2.4	2.1	4.8	0.3	1.0	3.6

주 기여도는 하위구성요소의 변동이 종합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지역별 하위구성요소의 기여도 합은 지역별 종합지수의 전년동월 증감율과 동일합니다. 주의, 기여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므로 하위구성요소의 합이 종합지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및 지수체계

한국표분산업분류(KSIC)				카드매출 빅데이터
	분류코드		분류명	가맹점 업종분류
서울소비경기지수	G. 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종합소매점 등
		472	음 · 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정육점, 청과물, 농수산물, 농가공산품 등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가전용품,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등
		474	의복 및 섬유, 신발 소매업	남·여·기성복, 신발, 가방, 직물 등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가구, 인테리어, 악기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운동 및 레저용품, 서적 및 문구, 완구 등
		477	연료 소매업	주유소, LPG가스, 가정용연료 등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약국, 화장품, 안경, 악세사리 등
		479	무점포 소매업	CATV상품판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자동판매기,방문판매 등
	I. 숙박 및 음식점업	551	숙박시설운영업	호텔, 콘도, 모텔, 여관 등
		561	음식점업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등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커피전문점, 주점 등

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카드 가맹점 업종사례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개요

- **서울소비경기지수**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소비중심업종에 대하여 전체 또는 개별생산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한 지수

- **데이터 :**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
- **공간적 범위 :** 서울 및 5대 권역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 **지수의 산식 :** 라스파이레스(기준시점 고정 가중평균)산식
- **서울 및 각 권역의 가중치**

산업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해당 지역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 각 권역의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 가중치 합이 1로 산정된 독립적인 지수로 각 권역 증감률의 합이 서울전체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음 $\Sigma_i w_i = 1$, w_i는 산업별 가중치를 의미 (기초가격 부가가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인건비 + 영업이익 + 감가 · 대손상각비 + 세금과공과임)

- **지수종류 :** 경상지수 및 불변지수

- 경상지수 : 월별 매출액을 기준년도 매출액(2017년 평균)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불변지수 : 경상지수 ÷ 디플레이터 × 100 (디플레이터는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활용)

- **기여도**

종합지수증감률 = Σ_i기여도$_i$, 기여도$_i$=(△하위지수$_i$ / △종합지수) × 종합지수증감률 , i는 각 산업을 의미
하위지수(산업 각 부문)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유의사항

-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이하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 소비지수이다.
-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소비는 서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약 30%로 소비경기의 핵심 요소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의 장점은 매월 1억건의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서울 세부지역의 소비경기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측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었으나, 분석대상인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비밀착업종임을 고려하여 지수의 명칭을 소비경기지수로 명명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와는 지수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와 데이터 출처에 따른 표본이 서로 달라 두 지수의 방향 또는 증감율이 상이할 수 있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개인 및 법인이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서울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집계한 것으로, 서울시민의 카드소비 뿐 아니라 서울외 지역 국민들이 서울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소비를 포함한다. 단, 무점포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소비(지출)로만 집계 하였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서울 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전체 매출의 약 16%로 추정된다. 카드사의 점유율 및 카드사용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 카드 가맹점의 업종 변화 및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경상 및 불변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작성 및 분석되며, 설명절, 연휴 등의 월간 이동과 영업일수 변동, 그 외 불규칙 요인에 의한 효과가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해석 및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